

배움에 대한 의지: 그 귀중한 가치
TEACHABILITY: AN INVALUABLE VIRTUE

By Rick Boxx

내 친구 톰은 한 회사의 CEO 인데, 회사 임원진 중 젊은 간부 한 사람이 직장 내 갈등을 겪고 있다고 했다. 그는 모두가 인정할 만큼의 놀라운 잠재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보다 성숙하게 그 능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조언과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람이 자존심과 통제력을 내려놓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었다. 톰은 그에게서 개인적, 전문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한 가지가 부족함을 느꼈다. 바로 '배움에 대한 의지' 였다.

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재로 거듭날 수 있을 정도의 훌륭한 지성과 타고난 재능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시와 가르침에 대한 거부감은 그의 성장에 큰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었다. 변화나 개선의 권고에 있어서 리더가 열린 마음을 갖지 않는다면, 그의 앞날을 위한 도움과 지원 역시 약화될 것이란 사실을 톰은 알고 있었다.

그 젊은 간부를 포기하지 않기 위해, 톰은 문제의 실상을 논의하려고 그와의 직접 대면 회의 일정을 잡았다. 톰은 그에게 배움에 대한 의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설명했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다고 이야기했다.

다행히도 그 리더는 톰의 제안을 겸허히 받아들였다. 그 결과, 그는 매우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조직에도 더 큰 이익을 가져다 주었다. 그와 회사 모두 윈윈의 결과를 얻게 된 것이다. 만약 그가 변화에 대한 권고를 무시했다면, 모두는 실패했을 것이다.

성경에서 또한 배움에 대한 의지의 중요성을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몇 가지 예를 살펴보자.

Tom, a CEO friend of mine, had a promising executive on his leadership team that was struggling at work. It had become obvious this individual would need additional oversight until he could mature into fulfilling the potential everyone knew he possessed. One of the problems involved the junior executive's reluctance to release any control. He lacked of a quality Tom considered critical for personal and professional growth: Teachability.

Despite having the intelligence and raw talent for one day becoming a valued member of the team, this fellow's resistance to instruction and correction would remain obstacles for advancement. Tom knew if the leader did not become more open to recommendations for change or improvement, most likely he would undermine any assistance and support sent his way.

Unwilling to give up on the young executive, Tom scheduled a face-to-face meeting with him to discuss the reality of the problem. He needed to prove that he was teachable, Tom explained, or it would be necessary to consider other options.

Fortunately, this leader humbled himself and accepted Tom's offer of additional direction. This resulted in rapid growth for the leader and more profitability for the organization. It proved to be a win-win for him and the company, but if he had resisted change, everyone would have lost.

Repeatedly in the Scriptures we find emphasis on the importance of teachability. Here are some examples:

배움에 대한 의지는 성공으로 이끌어 준다.

옛 말에 '우리 중에 모두를 합친 것보다 현명한 사람은 없다'라는 말이 있다.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독립적인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거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타인의 지혜와 통찰력을 믿고 자문을 구하는 경우에는 대개 성공으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잠 16:20)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잠 15:22)

배움에 대한 의지는 지혜로 향하는 길을 열어준다.

한 젊은 청년이 멘토를 찾고 있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묻자, 그는 이렇게 대답했다.

"당신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기 원합니다."

어린 나이에 성숙한 분별력을 보인 그는 자신의 실수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의 실수로부터 배움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지혜란 대개 경험의 결과물이며, 경험은 실수 뒤 교정과 변화를 통해 얻어지는 경우가 많다.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네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잠 19:20)

배움에 대한 의지는 최상의 자원을 추구한다.

이 세상은 지식으로 가득 차 있다. 어떠한 주제이든 그와 관련된 책을 수백, 수천 권 찾을 수 있다. TV, 라디오, 신문, 잡지 같은 미디어 매체로부터 공급되는 정보는 무궁무진하다. 또한, 인터넷은 손가락 몇 번만 움직이면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도서관과 다름없다. 그러나 제한된 시간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자원을 활용하는 가는 우리의 배움에 대한 의지뿐만 아니라 무엇을 배우는 지에도 영향을 미친다. 성경을 살펴보자 않겠는가? 사도바울은 어린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딤후 3:17)

배움을 향한 의지는 앞으로 비즈니스를 이끌어 갈 우리의 차기 리더들에게서 찾아보아야 할 중요한 자질이다.

Teachability leads to prosperity. There is an old saying that "not one of us is as smart as all of us." We might believe we can succeed independently, without help, but doing so almost always leads to failure. Relying on the wisdom and insights of others, however, usually leads to success. *"Whoever gives heed to instruction prospers, and blessed is the one who trusts in the Lord"* (Proverbs 16:20). *"Plans fail for lack of counsel, but with many advisers they succeed"* (Proverbs 15:22).

Teachability paves the way to wisdom. A young man seeking a mentor, when asked why he wanted to be mentored, responded, "I want to learn from your mistakes." Showing discernment beyond his years, this individual had realized he did not need to make all of his own errors; he could also learn from the mistakes others had made. Wisdom is usually a product of experience, and experience is often gained through making mistakes and then making necessary corrections and changes. *"Listen to advice and accept instruction, and in the end you will be wise"* (Proverbs 19:20).

Teachability pursues the best resources. The world is filled with knowledge. There are hundreds, even thousands of books on virtually any topic. There is an endless supply of information through the media – TV, radio, newspapers and magazines. The Internet can serve as a library at your fingertips, a cornucopia of content about practically everything. But we only have limited time, so which resources we use can affect not only our teachability but also what we learn. Why not consult the Bible? Writing to his young disciple, the apostle Paul declared, *"All Scripture is God-breathed and is useful for teaching, rebuking, correcting and training in righteousness, so that the man of God may be thoroughly equipped for every good work"* (2 Timothy 3:16-17).

Teachability is a quality we should all look for in those we select for leading areas of our business.

묵상 및 토론 주제 Reflection/Discussion Questions

1. 스스로 판단하기에, 당신은 배움에 대한 의지가 있다고 생각합니까? 함께 나눠봅시다.

Do you consider yourself teachable? Explain your answer.

2. 배움에 대한 의지가 없을 때의 결과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배움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상사에게 보고를 해야 했던 적이 있습니까? 이는 어떠한 경험이었나요?

From your observations, what are the consequences of not being teachable? Have you ever found yourself reporting to someone who seemed to lack teachability? What was that experience like?

3. 배움에 대한 의지를 기르기 위해 인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겸손은 배우고자 하는 마음을 기르고 유지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까?

What steps do you think a person can take to become more teachable? What role, if any, does personal humility play in being able to develop and maintain teachability?

4. 이번 주 월요만나에서의 마지막 조언은 성경을 중요한 배움의 자료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의 일터의 관점에서 생각해볼 때, 이에 동의하나요? 왜 그렇게 생각합니까?

A final suggestion in this “Monday Manna” is to turn to the Bible as an important teaching resource. Do you agree – especially when thinking in terms of today’s marketplace? Why or why not?

● **참고: 성경에서 이 주제에 관련된 내용을 더 알고 싶다면, 아래 구절을 참고하세요.**

잠언 12:15, 19:27, 20:18, 24:5-6, 27:17; 에베소서 2:10; 골로새서 1:28

NOTE: If you have a Bible and would like to read more, consider the following passages:

- (잠 12:15)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 (잠 19:27) 내 아들이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 (잠 20:18) 경영은 의논함으로 성취하나니 지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 (잠 24:5-6) 5 지혜 있는 자는 강하고 지식 있는 자는 힘을 더하나니 6 너는 전략으로 싸우라 승리는 지략이 많음에 있느니라
- (잠 27:17)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그의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 (엡 2:10)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 (골 1:28)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 북미주 KCBMC www.kcbmc.net
- 출처: CBMC INTERNATIONAL
- 번역: 한국기독실업인회 www.cbmc.or.kr